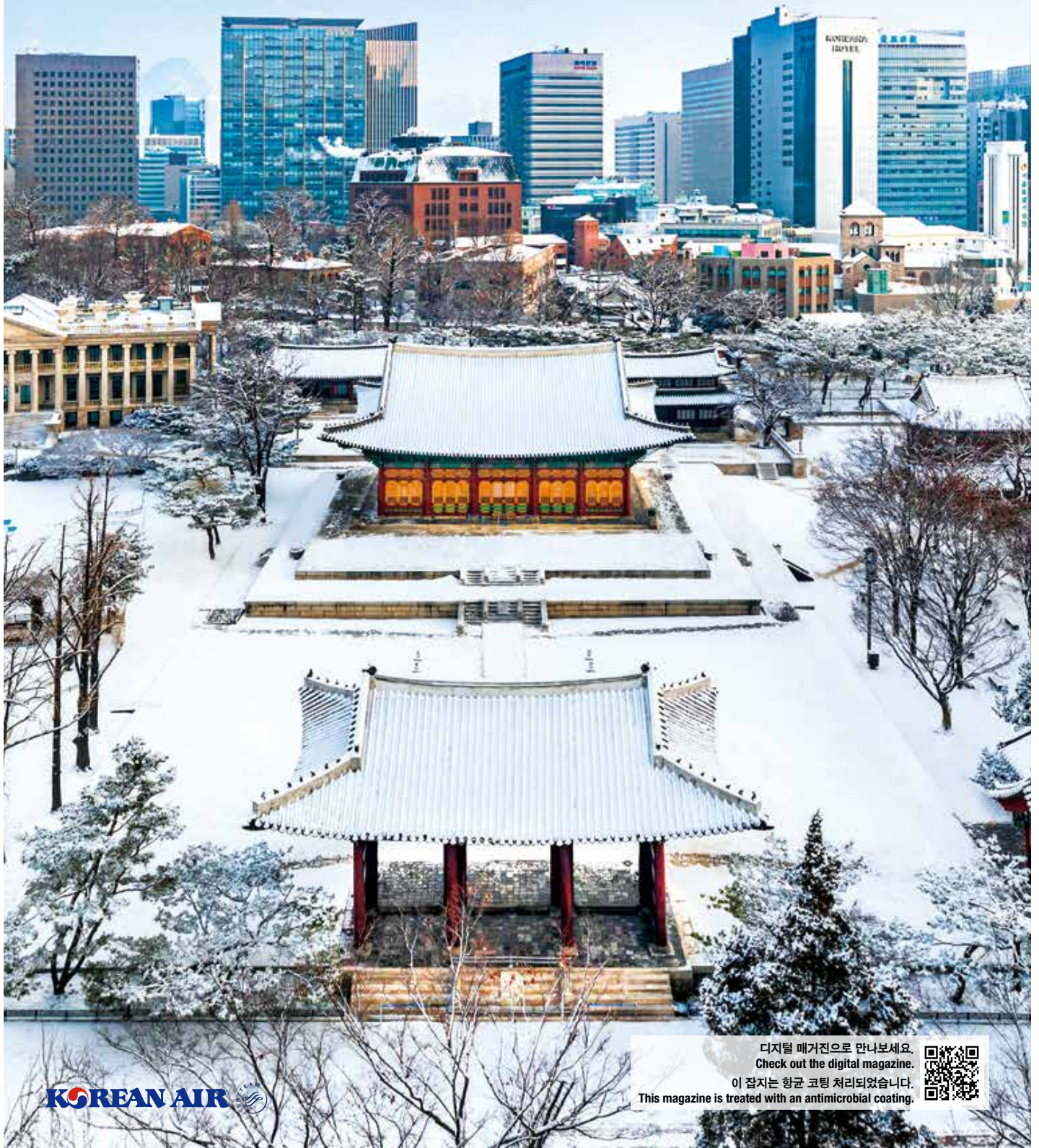


# MORNINGCALM

NOVEMBER / DECEMBER 2022



**KOREAN AIR** 

디지털 매거진으로 만나보세요.  
Check out the digital magazine.  
이 잡지는 항균 코팅 처리되었습니다.  
This magazine is treated with an antimicrobial coating.





## 동서양의 매력을 한곳에서 느낄 수 있는 하노이, 프렌치쿼터

베트남 하노이의 프렌치쿼터는 독특한 건축물과 꽃으로 가득한 사원, 녹음이 우거진 공간으로 가득하다. 나무가 늘어선 가로수 길과 바둑판식 도로가 교차하며 생겨난 뒷골목 사이사이에 자리한 이 지역은 그래서 더욱 주목할 가치가 있다.

WRITTEN BY JOSHUA ZUKAS PHOTOGRAPHY BY BẢO KHÁNH VŨ

Hanoi is home to Vietnam's historic French Quarter, an overlooked urban anthology of storied architecture, festooned temples, leafy open spaces and a vibrant café and dining scene, all nestled within a grid system of tree-lined boulevards and hidden backstreets.



© Shutterstock



# Hanoi's French Quarter, Where East and West Collide







베트남 북부에 위치한 하노이는 수도이자 베트남 문화의 중심지이다. 가장 잘 알려진 지역은 ‘올드 쿼터’로 불리는 구시가지다. 하노이의 중심부인 이곳은 각각의 개성을 지닌 유서 깊은 지역구들이 모여 있다. 구시가지와 도시의 숙박 시설 대부분이 위치한 호안끼엠 호수 주변에는 고풍스러운 매력이 가득하다. 바딘 지역은 베트남이 독립선언문을 낭독했던 바딘 광장을 중심으로 정부 기관이나 대사관이 밀집되어 있으며 대통령궁을 비롯해 대형 박물관과 호찌민 주석의 영묘도 자리 잡고 있다. 한때 시골 마을이 모여있던 때이 호수 주변은 하노이가 급성장하면서 이제 하늘 높이 치솟은 아파트 건물들이 가득한 글로벌 중심지가 되었다. 로컬 느낌이 물씬 나는 하노이 기차길 지역은 작은 카페와 바가 즐비해 볼거리를 제공한다. 하지만 호안끼엠 호수 남쪽 기슭에서 더 남쪽으로 뻗어 있는 프렌치쿼터에 가면 분위기가 달라진다. 프렌치쿼터에서 자랐으며 2020년, 이곳에 현대식 일본 레스토랑 마수를 개업한 현지인 피 응우옌은 “프렌치쿼터에는 특별한 것이 있다”고 말한다. 그리고 “바둑판식 도로와 넓은 거

리는 올드 쿼터에서 볼 수 없는 위엄 있는 분위기를 느끼게 해주며, 낮은 건물들은 역사적인 매력을 지녔다”고 덧붙인다. 프렌치쿼터는 베트남이 프랑스령인도차이나의 일부였던 100여 년 전에 자리 잡았으며, 이후 예술과 문화를 주도하는 극장, 박물관, 이벤트 공간들이 생겨나면서 비즈니스와 문화의 중심으로 꽃을 피웠다. 이 지역은 식민지 시대의 저택과 높이 솟은 나무 그리고 녹음이 우거진 공간을 지닌 덕분에 역 베트남이 지닌 매력을 상당 부분 보존하고 있다. 피 응우옌은 “내가 프렌치쿼터를 좋아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이지만 그중 하나가 이곳이 지닌 자연이다. 대부분의 거리에는 나무가 늘어섰고 작은 공원, 광장, 호수가 있다.”라고 말한다. 여기에 더해 “게다가 맛집이 많이 위치해 미식 문화도 즐길 수 있다”는 말도 전한다. 실제로 프렌치쿼터는 현지 및 세계 각국의 레스토랑과 카페로 가득 차 있다. 때문에 관광객을 둘러보면서 입맛에 따라 베트남쌀국수와 커피 같은 로컬 음식은 물론 일본식 초밥, 프렌치 메뉴 등을 맛보며 미각을 자극할 수 있다.





Central Hanoi is a patchwork of historic neighborhoods, each with its own personality. Quaint charm is on full display in the Old Quarter and around Hoàn Kiem Lake, where much of the city's accommodation is located. Ba Dinh is home to a thriving diplomatic quarter, grand museums and Ho Chi Minh's iconic mausoleum. West Lake, once a collection of rural villages, is now a hub for Hanoi's burgeoning cosmopolitan community, with sky-high apartment buildings that sit next to lakeside temples and pagodas. But the French Quarter, which stretches east from the banks of Hoàn Kiem Lake, is different.

"There's something special about the French Quarter," says Phi Nguyen, who grew up in the neighborhood and opened contemporary Japanese restaurant Masu there in 2020. "The grid system and broad streets give the neighborhood a stately atmosphere that you don't get in the Old Quarter, and yet the low-rise heritage buildings still muster

historic charm."

The French Quarter was established over 100 years ago, when Vietnam was part of French Indochina. Over the century, it's blossomed into a vibrant business center and cultural hub, with theaters, museums and event spaces that promote and celebrate the arts. And yet the neighborhood has managed to preserve much of its historic charm, thanks to the colonial mansions, soaring trees and verdant spaces.

"What I really like about the French Quarter is how green it is," Phi continues. "Most streets are lined with trees, and there are little parks, squares and lakes found across the neighborhood. It also has a great dining scene!" The French Quarter is packed with local and international restaurants and cafés, so there's always an excuse to tickle your taste buds — be it with some Japanese sushi or a Vietnamese coffee — in between discovering the sites.





### 통일공원

하노이 중심부에서 가장 넓은 녹지공간 중 하나인 통일공원(공비엔통냏)은 일출과 일몰 시간에 가장 활기를 띠며, 중앙 호수 주변을 산책하는 사람들과 그늘진 나무 아래에서 훈련하는 무술가와 무용 연습을 하는 댄서들을 볼 수 있다. 주말이면 공원의 북쪽 입구 근처에서 도서 박람회부터 음식 축제까지 다양한 행사를 개최한다.

### Reunification Park

One of central Hanoi's most spacious green areas, Reunification Park (Cong Vien Thong Nhat) comes alive at sunup and sundown, with walkers strolling around the central lake, martial artists training under shady trees and dancers honing their skills on mini-islands and peninsulas. The northern section of the park, near the entrance, hosts events — from book fairs to food festivals — on the weekends.





### 리트엥끼엣 거리

리트엥끼엣 거리는 프렌치쿼터에서 가장 자주 마주치는 곳으로, 이웃의 동쪽과 서쪽을 연결하는 주요 통로이다. 100년 전 프랑스인이 지은 리트엥끼엣 거리에는 오래된 나무와 프랑스식 건축 양식을 지닌 웅장한 저택 그리고 걷기 좋은 넓은 포장도로가 펼쳐진다. 매력적인 식당들도 자리 잡고 있다. 그중 하노이 특산품인 생선튀김을 국수와 함께 제공하는 레스토랑인 부어짜까, 현대적 일식 레스토랑인 마수 등이 눈에 띈다.

### Ly Thuong Kiet Street

This is arguably the French Quarter's most regal street, and it's a major thoroughfare linking the east and west sides of the neighborhood. Built by the French over a century ago, the boulevard houses centenarian trees, handsome mansions and broad sidewalks. There's also a handful of inviting restaurants, such as Vua Cha Ca, which serves fried fish with noodles, a Hanoi specialty, and Masu, a contemporary Japanese restaurant of unrivaled quality.







### 하호이 거리

편향다오 거리와 편꾸옥또안 사이의 녹음이 우거진 좁은 골목길에는 트렌디한 하노이 젊은이들이 북적이는 카페가 준비하다. 그중 와이즐랜드는 화분 식물로 안팎을 꾸민 도서관 겸 카페이며 ACID8 카페는 세련된 분위기에서 훌륭한 장인의 커피를 제공한다. 카페를 즐기며 이곳에 거주하는 현지인의 삶을 엿볼 수도 있다.

### Ha Hoi Streets

This warren of leafy and atmospheric alleys wedged between Tran Hung Dao and Tran Quoc Toan streets is packed with cafés targeting trendy young Hanoians. The Wiselands is a library-cum-café with lots of plants, while ACID8 serves superb artisanal coffee in chic surroundings. These residential lanes also offer a window into local life.



### 쑤옌 직물 시장

하노이에서 가장 큰 직물 시장이다. 요란한 색상들로 가득 차 있어 사진발을 잘 받는 곳이지만 방문객은 거의 없다. 옷감 구매에 관심이 없는 이에게도 쑤옌은 어지러운 정도로 다양한 색상과 패턴을 볼 수 있는 매력적인 곳이다. 위층에 위치한 발코니에서는 아래층 식품 시장의 탁 트인 전망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다.

### Hom Market

Hom Market (Cho Hom), Hanoi's biggest fabric market, is an explosion of color, and yet its photogenic upper chambers receive few visitors. Even if you have no interest in purchasing fabric, the market is a fascinating place to peruse the dizzying array of colors and patterns. The balconies of the upper floor offer sweeping views of the food market below.







### 하노이 오페라하우스

파리의 가르니에 궁전을 모델로 한 하노이 오페라하우스는 웨딩 케이크 구조를 지닌, 베트남에서 가장 웅장한 식민지 시대 건물 중 하나이다. 이 건물 앞에 원형의 작고 아름다운 정원이 있는데 프렌치쿼터 투어에서 주로 첫 번째로 방문하는 관광지이다. 거의 매일 밤 공연이 열리며 입장권은 입구 오른쪽 작은 매표소에서 구입한다. 일정은 홈페이지 ([hanoioperahouse.org.vn](http://hanoioperahouse.org.vn))에서 확인할 수 있다.

### Hanoi Opera House

Modeled on Paris's Palais Garnier, the Hanoi Opera House is a whimsical, wedding cake-like structure and one of Vietnam's grandest colonial buildings. The structure is the quintessential first stop on a tour of the French Quarter, as are the pretty triangular flower gardens that flank it. There are almost nightly performances, with tickets available at the small box office to the right of the entrance.



### 티엔광 호수

호안끼엠 호수보다 작고 조용한 티엔광 호수에서는 많은 것을 발견할 수 있다. 호수 동쪽에는 프랑스 식민지 시대의 아르데코 양식 건축물과 조깅 코스가 마련되어 있다. 호수 남동쪽 모퉁이에는 작은 상점들이 모여 있고 대나무와 등나무로 만든 공예품을 올드 쿼터 지역보다 저렴한 가격에 판매한다.

### Thien Quang Lake

Smaller and quieter than Hoan Kiem Lake, Thien Quang Lake still offers plenty to discover. Resting on the west side of the lake is a handful of colonial Art Deco mansions flaunting the architecture that the French Quarter is renowned for, as well as a path around the lake for walking or jogging. On the lake's southeast corner, a collection of small shops sell craft products made from bamboo and rattan at better prices than in the Old Quarter.



### 판스 사원

‘대사의 탑’이란 이름을 지닌 판스 사원은 베트남의 가장 중요한 불교 유적이자 하노이 사람들에게 특별한 장소이다. 17세기에 이웃 불교 국가의 대사를 초청하기 위한 영빈관이 있던 곳으로, 그래서 탑 이름을 ‘대사의 탑’으로 짓게 됐다. 오늘날에도 석가탄신일(4월 또는 5월)과 구정(1월 또는 2월) 같은 종교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특히 삼중 아치형 대문이 관광객의 시선을 사로잡는다.

### Quan Su Pagoda

Chua Quan Su — which means “Ambassador’s Pagoda” — is one of Vietnam’s most important Buddhist sites. In the 17th century, the pagoda hosted ambassadors from other Buddhist countries — hence the name — and today it still serves a vibrant religious community, especially during festivals such as Buddha’s Birthday, which falls in April or May, and Tet (Lunar New Year), which is either in January or February. The triple-arched gate makes for an impressive and inviting entrance.





### 찌에우비엣브엉 거리

사람과 오토바이가 한데 엉켜 북적거리는 찌에우비엣브엉 거리는 주차된 오토바이와 가느다란 나무가 가득한 포장도로 뒤로 수십 개 커피숍이 즐비하게 들어선 하노이 최고의 카페 허브 중 한 곳이다. 지금은 볼 수 없지만 베트남에서 유명한 커피 전문점인 공카페나 따지오프가 바로 이 커피 거리에서 탄생했다. 최상급 베트남 커피를 만드는 카페 타이에서는 현지 스타일로 커피와 함께 해바라기씨가 제공된다.

### Trieu Viet Vuong Street

Bustling Trieu Viet Vuong Street is one of Hanoi's café hubs, with dozens of coffee shops sitting side-by-side along sidewalks packed with slender trees and parked motorbikes. While they no longer grace the street, many Hanoi institutions, such as Cong Café and Tadioto, were born here. Café Thai brews excellent Vietnamese coffee and serves plates of sunflower seeds — a local favorite.

대한항공 직항 편을 이용해 하노이에 닿을 수 있다.  
하노이로 가는 비행 편은 매일 운항한다.  
Korean Air flies direct to Hanoi with flights operating daily.